

종합

현대차그룹 ‘비자금’ 대국민 사과
“1조원 사회 환원”



글로벌 주식 2,250만주
기획총괄본부 축소 개편

비자금 등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과 정이선 기아차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1조원 상당의 글로벌 주식들을 조건없이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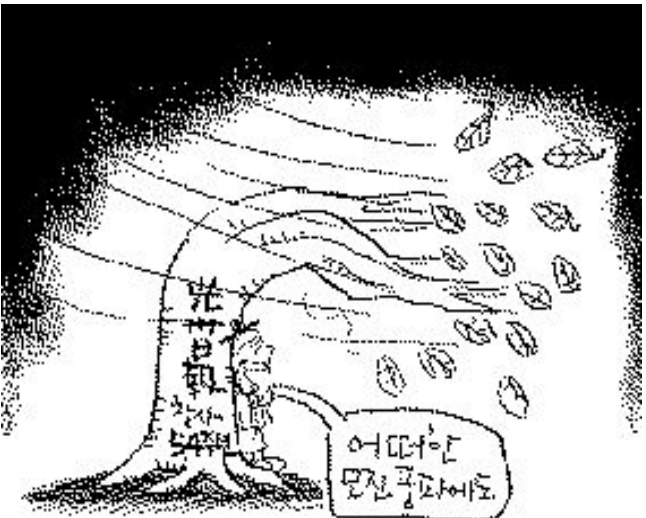
현대차그룹은 이전갑 현대·기아차 기획총괄담당 부회장이 발표한 ‘국민 여려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현대차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사랑과 성원으로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부끄러움과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은 ‘정 회장이 자동 차산업의 중흥을 위해 기업경영에만 전념해 앞만 보고 달렸으나 현대차그룹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머리숙여 사과”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본사에서 이 전갑 현대·기아차 기획총괄담당 부회장(왼쪽에서 두번째) 등 현대차 간부들이 사채 1조원 출연을 약속한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필뉴스

햇님만정

- 김중두



독자를 지켜 줄 든든한 나무로 거듭-

공시 최고

아래기체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일인 2006. 7. 24. 16: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민일 이윤 개발리더인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6년 4월 20일

광주 지방 법원 판사 조기 열

Table listing court cases with columns: 사건번호 (Case No.), 신청인 (Applicant), and 목적 (Purpose). It lists various legal proceedings such as debt collection and property disputes.

창사 54 특집

Table listing articles from the '54th Anniversary Special' with columns: 제목 (Title), 면적 (Pages), and other details. Articles include '국회 첫 인터넷 패널제도' and '이어령 前문화장관 인터뷰'.

韓·美, FTA 17개 협상분과 협의

7월 양허안 교환키로

한국과 미국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사전준비협의를 갖고 상품무역, 무역구제 등 17개 협상분과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했다.

대표는 17, 18일 이틀간에 걸친 협의에서 한미 FTA의 공식 영문 명칭으로 ‘KORUS(코러스) FTA’를 쓰기로 합의했다. 특히 제1차 사전협의 때 한국측은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미국의 무역구제 제도가 자의적으로 행사될 경우 한국측에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분과 구성을 주장했으나 미국측이 반대해 합의하지 못했다가 이번 협의 때 무역구제 분과를 별도로 설치키로 합의했다.

기아차 정이선 사장
검찰, 오늘 소환조사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정몽구 회장 부자 사에 대해 한남리로 한 재산에는 거래액의 ‘보통수익’이 포함된 만큼 기존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정 회장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9일 정 회장의 부자 재산 환원이 현대차그룹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나 질문에 “회사의 자발적 판단이고 회사의 일이다.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이선 기아차 사장을 20일 불러 조사하고 다음 주 초에는 정 회장을 소환조사 한다.

한남리 부동산을 둘러싸고 정이선 부자 사와 현대차그룹은 또 사외이사와의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윤리적 요소 사전에 차단하고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인 감찰을 통해 의사 결정의 투명성도 높여가도록 했다. 또 기획총괄본부 조직을 대폭 축소, 개편해 계열사별로 자율 경영 체계를 구축, 계열사 대표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독립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면 ‘선거 여론조사’서 계속

광주·전남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가상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박광태 현 시장이 열린우리당 김재균, 조영택 후보를 큰 격차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사 후보 전체 선호율에선 박준영 현 지사가 지난해 11월 조사 시 차 이래 가장 높은 46.7%를 기록했다. 민주당 후보는 큰 격차로 따돌렸다. 서법석 전 교육연직자본부 차관은 8.5%, 국창권 전 국회의원 4.6%, 한나라당 박재순 전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은 2.8%를 각각 얻었다. 민주당 박준영 후보와 열린우리당 서법석 후보를 중심으로 한 가상대결에서는 박 후보가 59.7%, 서 후보는 15.5%로 나타났다.

‘J프로젝트’ 사업 본격화

개발지구 3천만평 용역 착수... 연내 승인 신청

서남해안 관광래저 기업도시조성(J프로젝트) 대상 면적 3천만평에 대한 개발계획 용역이 모두 착수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J프로젝트 전체사업지구 3천만평 가운데 2천 50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 용역을 삼안컨소시엄에 의뢰한 전남 개발공사는 20일 전남도청 상층실에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정경련합동기획단이 발주한 500만평을 비롯해 J프로젝트

광주시장 후보 경선 ‘100% 여론조사’

열린우리당 결정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이 100% 시민여론조사로 결정됐다. 19일 열린우리당 최고위원들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을 논의한 결과 100% 시민여론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구역에 대한 용역이 모두 착수돼 연내에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전경련합동기획단과 전남개발공사에 개발계획용역을 수립 하던 한국관광공사와 통합 개발계획 작업을 거쳐 올해말 문화관광부에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 할 계획이다.

김동철 의원은 “김재균, 조영택 예비 후보도 100% 여론조사 경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여론조사 방법